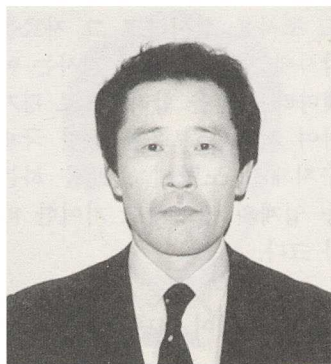




건물전체의 기능을 고려한 점검되도록

사람은 태어나 약간의 사리분별이 시작될 때부터 “애비,” “에이 뜨거,” “안돼”의 세가지 경고성 감각교육을 받는다. 이중에서도 “에이 뜨거”는 바로 불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여 평생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어머니가 밥 짓는 아궁이 앞이나 화롯가, 등잔 불등 불꽃이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불심지를 건드려 보고싶은 충동으로 손이 근질거리고 행동에 옮겨진다. 이때 우리 어른들은 “이녀석 불장난하면 오줌싼다”라는 말로 못하게 하여왔다. 오줌을 싸면 발가벗겨 카를 쓰고 이웃 집에 보내 소금을 얻어 오게하는 관습으로 매우 창피한 일을 겪게 했다.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순간을 머리속에 떠올려 불장난 하던 손이 멈추어지도록 하고 “정말 오줌싸면어떡하지”하는 불안감으로 불장난을 막는 효과를 노렸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에 대한 위험성을 막연하게나마 항상 마음



고 병 훈
<(주) 양지종합시장 상무>

깊이 간직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웃이나 멀리서 크고 작은 화재를 목격한 사람과 하지못한 사람, 특히 본인이 화재를 당한 사람과 당하지 않은 사람과의 일생동안 방화관념에 대하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불에 대한 필자의 경험은 부모님으로부터 “오줌싼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불장난을 하고 나서 한번도 오줌싼 적이 없었다거나 일제시대 나막신

공장에서 불이나 하늘까지 빨강게 타는 듯 했을때 집에서 뛰쳐나가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꿈쩍 못하게 하여서 안달하며 창고 꼭대기에서 까치발로 보려고 애쓰던 일등 아스라히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들 뿐이다. 성년이 되어서도 화재에 대한 피부감각이 닿지않는 먼 거리에서 생활하다보니 그야말로 화재하면 “강건너 불”로 남의 일이었다.

필자가 직접 화재예방과 씨름을 시작하게된 것은 대형상가의 관리를 맡게 된 뒤였다. 그때부터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좌우명이 되다시피하여 라디오나 TV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소방차만 지나가도 확인전화를 하여야만 안심이 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초긴장 상태도 사전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어지고 안일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심리인듯 했다. 대형상가에서 무사고속에 관리업무를 끝내고 대형종합상가를 다시 관리하게 되었는데 새로 맡은

건물은 住公이 현대시설을 완벽(?)하리만큼 빈틈없이 갖추어 신속한 건물인데다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하여 불이 겁먹고 근처에 열선도 하지 못할 것같은 확신을 갖게했다. 게다가 처음에 대형상가에서의 화재예방활동이 무사히 수행되었다는 자신감에서 온 안심성이 겹쳐 「불」에 대한 예방의식과 경각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때부터 외양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갔고 황소도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렸는데도 아무도 발견치 못하고 사무실에서 잡담으로 소일하는 태평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었다. 인간만사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항상 태평스러움만 구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불의의 일격을 가하는 재난이 오기 마련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불구경을 하고 싶어 안달했었지만 30여년후에 나의 책임 아래 있는 건물이 그 불로 반신불수가 되고 상인의 아우성과 퀴퀴한 냄새, 정적, 넘치는 물로 범벅이 되는, 꿈에도 상상못한 결과로 눈앞에 모습을 드러 내놓게 될 줄은 정말 짐작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마 이때가 화협이 활동초기라고 보아지는데 외양간 수리작업에 들어가 정리하다가 다시한번 크게 느끼고 후회스러워했던 것은 근무자및 상인들에 대한 소방교육이 소홀했다는 점이었다.

소화전, 소화기사용법과 신속한 신고훈련만 철저히 아니 약간만 시켰어도, 신문지 한장 태우는 불꽃을 발견하고도 당황하여 소화기를 통채로 던져버린 뚱뚱범하지 않았더라면 확산되지 않고 초기진화 할 수 있었을 것을, 하

는 따위의 아쉬움이—.

그때부터 화재예방 제일목표로 근무자, 입주상인의 소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시설보완도 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사고의 안일이 누적되어 수십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변하는 심리는 언제나 고스란히 되풀이되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예방활동은 계속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화협의 화재안전점검이 본체도에 오르면서 건물 방화관리를 맡은 중간 관리자, 건물주들이 화협의 안전점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것이 삼사년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반응자체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띠는 법적 바탕위에서 생긴 타의적 관념의 소산일 뿐 결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적극적인 인식은 아니며 그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방화관리자들은 기초적인 안전관리자로서 전문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화협 안전점검요원이 전문성있게 엄밀히 진단한 내용자체가 건물주들에게 자기재산의 병든 곳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전이라는 것을 깊이있게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화협의 안전점검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실무자들이 점검의 효과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화협의 업무는 인정받게 될 것이며 건물 소유주도 화협이 자기 건물의 관리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진단과정에서 점검요원이 보여준 틀에 박힌듯한 점검방식과 건물전체의 기능을 고려하지도 않고

타성적으로 진단해 건물주들의 불만을 자아내게 하였던 점등은 깊이 분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설계자들의 방화시설기준에 대한 지식, 준공검사시의 점검내용, 화협의 지적사항등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합일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물주는 이 모든 것을 설계자, 준공검사자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명제인 것이다.

모든 시설은 시작할때 완전하여야지 완공 후의 개선은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들고 입주후의 공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입주자에게도 막대한 불편과 불만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 각 분야가 신속한 발전을 하였지만 이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제도의 결여로 휴용증이 심각하였던 사례가 허다하였다. 다행히 화협은 이러한 점에서 선구적인 입장으로 14년전에 이미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요율의 불균형과 보험료의 고정치가 적용되고있는 사례는 선진국과의 경쟁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주, 즉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도 개선책의 연구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종합대책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개척기에서 안정기로 돌입하기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화협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